해외출장(런던) 요약

부서 : 글로벌미래연구센터
자료제공 : 변 미 리
작성일 : 2017년 12월 26일
게시요망일 : 2018년 1월 5일

제목 : [해외출장노트] 도시정책지표 개선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런던 출장

※ 서울연구원은 2012년 10월부터 해외출장보고서를 발췌, 요약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1) 출장 목적

- 2017 서울서베이는 기존의 지표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해외자료 검토, 국내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지표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최근 도시정책지표는 도시발전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세계 주요도시의 도시발전과 방향 및 주요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웰빙(wellbeing)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고, 시민의 행복을 강조하는 영국 런던을 방문하여 도시의 정책지표 경향을 파악하고, 글로벌 도시정책지표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함

2) 출장 내용

(1) 웰빙지표 구축 및 지표의 활용

- 영국의 What Works Centre for Wellbeing은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그 역할은 독립적인 기관으로 대학, 정부기관, 기업, 비영리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웰빙 관련 지식(knowledge)과 의사결정자(decision-makers)를 위한 가교의 역할을 목적으로 2013년에 설립된 기관임
- What Works Centre for Wellbeing 은 실증적 자료에 기반(evidence base)하여 웰빙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하며, 시민의 웰빙과 관련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웰빙지표체계는 ideal set과 currently available set으로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이상적으로 웰빙을 측정하는 지표체계(ideal set)는 물론, 데이터 이용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한 지표체계(currently available set)를 확인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표를 개선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What Works Centre for Wellbeing은 매년 웰빙 리포트를 발간하고, 데이터를 지방정

부(local authority)별로 집계하여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지역별로 웰빙 수준을 비교하고, 추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2) 다양한 계층과 세분화된 인구집단에 대한 웰빙 분석

- The Children's Society는 아동빈곤, 돌봄(고아원, 입양) 등의 문제를 위해 런던의 공무원인 에드워드 루돌프 (Edward Rudolf)에 의해 1881년 Church of England Central Society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자선단체임
- 1980년대 이후 The Children 's Society으로 기관명칭이 변경되고 초기의 보육기관, 입양기관에서 범위를 확장하여 미혼모를 위한 센터, 청소년 단체, 청소년 피난민, 거리에서의 비행청소년,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한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 및 캠페인을 수행하는 등 그 기능이 확대됨
- The Children's Society는 성인들의 웰빙 측정을 위한 지표와는 별도로, 8세 이상 어린이들의 웰빙을 측정하기 위해 2010년 The Good Childhood Index를 개발하였음
- 어린이들을 위한 웰빙지표는 삶에 대한 만족도 이외에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외모, 미래의 삶에 대한 예측, 다니는 학교에 대한 질문 등 어린이들의 웰빙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음
- 영국은 웰빙 연구와 관련하여, 청소년과 어린이 등 다양하고 세분화된 인구집단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Centre for Global Youth와 Great Ormond Street Institute for Child Health는 청소년들의 웰빙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식습관, 건강(정신, 육체), 가정환경, 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령별, 소득별, 국가별 등 비교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청소년 웰빙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음

(3) 웰빙지표의 정책적 활용 노력

- What Works Centre for Wellbeing은 실증분석을 통해 시민들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또한, 웰빙지표를 통한 모니터링, 정책대안들의 웰빙 평가 비교, 웰빙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 평가 등을 실시하여 웰빙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 웰빙 평가에 대한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의 역량(capabilities) 제고, 동기부여(motivation), 기회(opportunity)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도 병행함

(4) 시민의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What Works Centre for Wellbeing은 대학교, 통계청(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지방정부 등 다른 기관들과 협력적으로 연구, 미팅, 워크샵 등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웰빙을 향상하고자 함
- 또한, 웰빙지표 구축 및 데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비영리단체인 Happy City와 협력하고 있

으며, 어린이들의 웰빙 측정 및 평가에 있어 자선단체인 The Children's Society와 협력 체계 구축

3) 정책 시사점

-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삶의 질(Quality of Life), 웰빙(Wellbeing) 등 시민의 행복과 생활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영국의 경우, 웰빙지표체계 구축, 지표의 활용, 웰빙보고서 발간, 지역별 결과 비교 및 데이터 공표,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해 시민에게 웰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음.
- 영국은 세부적인 인구집단에 대한 웰빙 측정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특히, 어린이들의 웰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별도로 구축하여 매년 어린이들의 웰빙을 평가하여 보고서 발간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들의 웰빙과 관련하여 신경과학,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제간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 이러한 영국의 사례는 서울시가 시민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구축하고, 시민의 행복을 평가하여 정책에 활용하는데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도시정책 지표개발 이후에도 지표의 개선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세분화된 인구집단에 대한 실증적 지표수집과 분석을 통해 증거에 기반한 구체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제공 및 문의처 :
글로벌미래연구센터 변미리 센터장 (2149-1303)